

# 손태승 “우리는 원팀”

(우리금융그룹 회장)

## 공감·소통 경영 행보

2주 동안 그룹사 차례로 방문  
미래 발전 위한 아이디어 공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그룹사 임직원과 공감 소통 경영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전 그룹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임직원들과 수평적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열린 소통에 나섰다. 14일 밝혔다.

이번 소통 행보는 업종이 다양한 총 10개 그룹사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손태승 회장이 직접 제안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손 회장은 지난 2일 우리카드를 시작으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FIS,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자산신탁, 우리종합금융, 우리신용정보와 우리PE자산운용을 2주일에 걸쳐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총 8회에 걸쳐 ‘공감 소통 경영’이란 주제로 손 회장이 자회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돌아보고, 맑은 바 소임을 다하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전 그룹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임직원들과 수평적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열린 소통에 나섰다. 손태승(가운데) 회장이 우리자산신탁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일 국내 유일한 종합금융사인 우리종합금융을 방문한 손 회장은 “유일한 종합사라는 강점을 살려 고객을 유치하고, 은행과 연계해 자산관리(WM) 신탁 상품 등 리테일에도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득 우리종합금융 사장은 “손 회장님과 예정보다 긴 시간동안 허심탄회하게 경영 전반은 물론 조직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젊은 직원들도 지주사 CEO의 회사 방문을 반겼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그룹사별로 10명 내외의 영리더(Young Leader) 직원들과 점심식사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격의없는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고 우리금융그룹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신한銀, 서울대병원에 헌혈증서 기부

임직원 헌혈증서 2020매 전달  
기증 캠페인 이틀만에 목표달성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본관에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신한은행이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증서 전달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서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에서 진옥동 은행장 및 임직원이 기부한 헌혈증서와 2001년부터 20년간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 2020매를 서울대학교병원에 전달했다.

이번 헌혈증서 기증은 헌혈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네이버 기부포털 해피빈의 ‘사랑의 헌혈 캠페인 응원 댓글’ 캠페인과 동시에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6월 5일부터 일주일간 헌혈 응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본관에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왼쪽)과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원 댓글 2020개 달성 시 헌혈증서를 기증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시작 이틀만에 목표를 달성해 이번 사랑의 헌혈증서 전달이 이뤄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헌혈증서 기증과 응원 댓글 캠페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헌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책임 있는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IBK기업銀, 환매중단 상품 선가지급

선가지급 비율, 최초 투자원금 50%

IBK기업은행이이사회를 열고 디스크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선가지급·후정산’안을 결정했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우선 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은행 측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가지급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4일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 키코 공동협의체 가동... 銀 참여는 미지수

KB국민·농협銀 등 참여여부 검토  
금감원, 피해기업에 자율조정 권고  
실질적 배상안 어렵다는 지적도

이르면 이달 말 외환과생상품 키코(KIKO) 자율배상을 위한 은행권 공동협의체가 가동한다. 다만 11개 은행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지 미지수인 데다 이들 은행중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한 은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배상안이 나오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IBK기업·농협·SC제일·HSBC 등 5개 은행이 키코 자율배상을 논의하는 은행권 협의체 참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키코 판매은행들과 금융감독원이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협의체 참여의사를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개 은행에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을 내리며,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 기업들도 자율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해당기업은 키코 피해가 발생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산한 기업 61곳을 제외한 145개 기업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을 확인해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피해기업들이 여러 은행과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 은행별로 각자 조사·배상케 되면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은행들이 모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협의체 참여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KB국민·IBK기업·농협·SC제일·HSBC은행은 분쟁조정절차에 오르지 않은 은행이다. 앞서 나머지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분쟁조정결과를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불수용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 논의의 절차를 거치면 유연하게 배상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불수용한 은행들 중 나머지 피해기업과 자율 조정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던 은행들은 대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자율조정 의사를 밝힌 은행은 우리·신한·하나·대구·씨티은행이다.

계다가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은행들의 실질적인 배상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 배상건의 경우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배상하면 주주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의 분쟁조정결과를 거절했던 은행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안을 논의해 결과를 내놓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NH농협銀, 안성 농장 찾아 금융 컨설팅

청년농업인 금융·컨설팅 지원 확대

NH농협은행은 지난 11일 농업·공공 금융부문 지준섭 부행장과 임직원이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산란계 농가 텃밭농장을 찾아 ‘농업금융컨설팅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금융컨설팅은 농업자금지원과 금융·경영컨설팅을 결합한 특화서비스

다. 농업경영체의 경영상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최적의 자금을 연계지원해 농업경영체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농협만의 특화된 무료 서비스다.

지준섭 부행장은 “농업금융 전담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텃밭농장’에서 NH농협은행 지준섭 부행장(왼쪽 두 번째)이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농협은행

## 신한카드 데이터3법 개정 대응 가명정보 설명회

신한 네오 프로젝트 일환

신한카드는 지난 12일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신한금융그룹 직원 대상 ‘가명정보 결합·활용 설명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춘 신한금융그룹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그룹 차원에서 데이터3법 개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융의 힘으로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지원한다는 신한금융그룹의 ‘신한 네오(N.E.O.·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 프로젝트’ 일환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DS 등 각 그룹사의 빅데이터 담당자와 현업 실무자 등 온라인 참



지난 12일 서울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가명정보 결합·활용 설명회’에서 이광우 금융보안원 데이터활용지원팀장이 신한금융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신한카드

여 40명을 포함해 총 80명이 참석했다. 신한금융그룹 직원들은 가명정보의 법적 개념에 대한 설명과 이종 기업간 데이터 결합 절차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개정된 데이터 3법 아래 각 그룹사의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희주 기자 hj89@